

와이에 있는 많은 한인단체에서도 지지를 선언해 주시는 등 재외동포 사회에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” 고 말했다.

이어 진행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문제를 묻자 유정복 시장은 “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기본 권한이지만, 법률적 판단, 국민 정서, 정치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,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이고 재판내용에 대통령 재임 이전의 일도 포함된 만큼 국민 화합, 국가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사면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” 고 밝혔다.

또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선 “본질적으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당의 얼굴을 뽑는 것으로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의 충의를 묻는 것” 이라며 “기본적으로 당원에 의해 당 대표가 뽑히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100% 당원투표 방식에 찬성한다” 고 답했다.

<관련사진>



▲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일(현지시간) 하와이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이민 120주년 기념 인천의날에서 재외동포청 인천광역시 유치 지지선언문을 전달받고 있다.